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韓 德 雄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우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14개월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수행했다. 대학 입학후 처음 사귄 동성 친구들 가운데 세 조사 시점에서 동일한 인물을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선정했던 71명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들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한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친구에 대한 대인매력의 변화를 성별 및 시점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친구와 교류한 전체 행동의 다양성, 긍정적 행동수, 부정적 행동수, 최고 자기노출 수준 및 노출의 바람직한 수준이 증가되었다. 변화의 크기는 친교 후기보다 초기에 더 컸다. 대인매력 평정총점에서 세 시점간에 변화가 없었으나 대인관계의 밀접성 수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대인행동 측정치들과 자기노출 측정치들을 함께 예언요인으로 사용하여 다음 시점에서의 대인매력을 효과적으로 중다예언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대인행동, 자기노출과 아울러 대인매력 측정치를 중다예언요인으로 첨가하면, 다음 시점에서의 대인매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침투이론을 지지하는 자료로서 해석되었다.

최근에 사회행동으로서 중요성이 큰 친밀하고 밀접한 대인관계의 형성, 진전 및 퇴화과정의 연구를 강조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발표되었다(Kelley, et al, 1983; Duck & Gilmour, 1981; Duck, 1977; Levinger, 1980; Burgess & Huston, 1979; Huston & Levinger, 1978; Levinger & Raush, 1977). 여기서, 밀접한 관계란, Kelley(1983, p.38)의 정의에 따르면, 비교적 오랜 시간의 경과를 거쳐서 형성되는 연결이 강하고, 빈번하고, 다양하고, 상호의존적인 두 사람 관계를 말한다. 즉, 밀접한 관계란 연결 강도, 빈도, 다양성 및 친교기간이라는 네 기본 요소에 의해서 정의된다.

한편, 밀접성이라는 폭 넓은 개념과는 달리, 친밀성은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도 좋은 대인관계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Walster, Walster와 Berscheid(1978)는 다음 여덟가지 측면에서 친밀한 관계의 특징을 지적한다.

첫째, 대인매력 강도가 크고, 둘째, 상대방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알고, 셋째, 친교기간이 길며, 넷째, 보상을 포함해서 상호교환한 자원이 가치있고, 다섯째, 두사람의 관계를 끊는데 따르는 부담이 크며, 여섯째, 보상을 포함해서 상호교환한 자원의 종류가 다양하며, 일곱째, 상호교환한 자원들이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여덟째, 너나 나로 분석할 수 있던 관계로부터 우리 관계로 분석단위가 바뀌게 된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Walster 등(1978, p.154)은 친밀성을 생활이 깊이 얽혀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간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들로부터 친밀한 관계의 구체적 예로서는 우정, 애정, 부부 및 부모-아동관계처럼 좋은 관계만을 지칭하지만, 밀접한 관계에는 이밖에 증오나 질투의 대상과의 좋지 않은 관계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정의에서도 시사되는 바와 같이,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피상적 대인관계보다 깊은 대인관계의 형성, 발전, 유지 혹은 와해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접근경향은 최근까지의 대부분의 대인매력 연구가 피상적 대인관계에서의 정태적 현상을 강조한데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표현한 점과 관련하여 생길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친밀한 관계의 연구가 대두됨으로써 피상적 대인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대인매력 연구의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경감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피상적 대인관계에서의 대인매력은 대부분 실험을 통해서 연구 되었는데, 이 방법은 계속 중요시되며 이 방법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들이 친교형성이나 대인매력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둘째, 친밀한 관계를 다루는 최근 연구들은 다루는 변인의 수나 연구방법에서 1960년대 이전의 상관연구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방법상의 단순한 복고현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다변인을 인과론적으로 추론하기 위한 기법이 발전된데 비해서, 이전에는 이미 형성된 친숙한 관계에서 그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단일 변인들을 정태적으로 알아내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예를들면, 유사성-매력가설을 다룬 연구들에서 이미 우정이 형성된 친구들 사이에 태도나 성격등 단일변인에서의 유사성을 밝히는데 그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밀접하거나 친밀한 대인관계의 성질과 연구의 필요성이 성립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관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현재까지는 친밀한 대인관계의 형성, 유지, 혹은 와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 형평, 힘 및 갈등현상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다. 친밀한 대인관계 가운데 하나인 우정 관계의 연구도 현재로서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연구의 부족이 두드러진다. 이 논문은 중다변인 분석에 의해서 친구 관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알아내려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데 한 부분으로 보고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종단적 연구법을 사용하여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친구와의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친구에 대한 매력 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두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관계를 이루는 두 사람 사이에 친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상호 교류한 행동, 자기노출 및 친구에 대한 매력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둘째, 친교 기간 중 일정한 시점에서 친구와 교류한 행동, 자기노출 및 친구에 대한 매력에 의해서 다음 시점의 매력이 효과적으로 예언될 수 있는가?

이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Altman(1974; Altman & Taylor, 1973)이 제안한 사회적 침투이론으로 부터 유도된 몇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사회적 침투이론은 피상적 수준에서 부터 친밀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일반모형으로서 두 사람간의 친교 수준별 분석을 강조한다. Altman(1974, p.125)은 사회적 침투란 외적 행동과 아울러 내적이며 주관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현상으로서, 대인간의 교환에 선행하거나, 교환에 수반되거나, 교환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 가운데 외적 행동에는 정보교환을 포함하는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및 공간이나 사물의 사용과 같은 환경지향적 행동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관적·내적 과정에는 기대, 귀인과정 및 타인에 대한 평가적 판단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침투이론 가운데 이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대인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양자가 점차 많은 양의 행동을 교환하게 되며, 교환되는 행동의 질도 긴밀한 내용의 성질로 바뀌게 된다는 주장이다. Altman은 이 점을 대인간 성격교류의 세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이 세 차원이란 교류 범주의 수를 나타내는 범주폭(category breadth), 각 범주내의 활동 빈도를 나타내는 폭별 빈도(breadth frequency), 그리고 대인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깊이(depth)이다. Altman(1974, p.124)은 초기에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행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초기 이론 형성단계에서는 주로 자기노출 현상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대인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깊어지고, 범주폭은 점차 확대되며, 폭별빈도도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이론은 교우관계의 두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침투의 속도도 진전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친교 초기에는 양

1) 우정의 구성요소에 대한 주장들과 전생애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유진(1984) 참조.

자관계에서 사회적 침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다가 후기에는 늦어진다. 이처럼 대인매력의 형성과 발전이 시간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진전되는 사회적 침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후에 발표된 Altman(1975)의 대인 상호작용의 통제에 관한 사생활 조절이론(privacy regulation theory)이나, 그 후 Altman, Vinsel과 Brown(1981, p.127)이 사회적 침투이론과 사생활 조절이론을 통합한 사회관계의 변증법이론(dialectic theory of social relationships)에서는 대인관계의 발전이나 변화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 이들은 친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도록 방향지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기 사회적 침투이론에서 처럼 친교관계의 성공적 발전여부에 상관없이 단지 종단적 시간 경과 만으로 항상 깊은 사회적 침투가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정된 이 이론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전된 친구관계라면 친교 기간에 따라서 폭 넓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친밀한 방향으로 사회적 침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즉,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서 동일한 인물을 계속해서 선택한 성공적 우정관계에서는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교류의 폭이 증가되므로 점차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고, 대인교류의 친밀도도 높아지며, 이와 아울러 친구에 대한 매력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언된다. 이 예언을 본 연구에서 검증할 제 1가설로 삼는다. 이 가설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수, 자기노출의 친밀도 수준 및 친구에 대한 매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반복측정 함으로써 검증할 것이다.

또한, 앞서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적 침투이론에서는 성공적 우정관계라고 하더라도 친교시점에 따라서 사회적 침투가 일어나는 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침투의 비율은 친교 후기보다 초기에 빠를 것으로 예언된다. 이 예언을 검증할 제 2가설로 삼고, 친교기간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후기보다 초기에 행동의 다양성이나 노출의 친밀도 수준이 더 많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한편, 사회적 침투이론에 따르면 대인 간의 침투나 관계의 지속은 교환관계에서 각자의 부담(cost)과 보상(reward)에 대한 쌍방의 지각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현재의 교환을 평가한 결과, 보상이 부담보다 크거나 장차 크리라고 예견되면 양자관계는 지속되고 진전된다. 그런데 Foa와 Foa(1975)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간의 긍정적 행동적 교류나 친밀한 수준의 언어적 정보교류는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보상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위의 주장으로부터 친구에 대한 호감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도 자신이 지각하는 두 사람 상호간의 행동이나 언어적 교류 결과에 의해서 결정 된다는 가설

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제 3 가설로 삼고, 중다회귀분석에 의해서 친구에 대한 매력수준이 이전 시점에서의 대인행동과 자기노출이라는 두 예언요인에 의해서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가설 : 성공적으로 진전되는 우정관계에서는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양한 대인행동이 나타나며, 언어적 교류의 친밀도 수준이 높아지며, 또한 친구에 대한 매력도 높아질 것이다.

제 2 가설 : 성공적으로 진전되는 우정관계에서는 친교 후기보다 초기에 다양한 대인행동이 나타나며 언어적 교류의 친밀도 수준도 높을 것이다.

제 3 가설 : 친구와의 대인행동의 다양성과 언어적 교류의 친밀도 수준에 의해서 대인매력을 효과적으로 중다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 및 절차

(1) 연구절차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새로 사귀게 된 가장 좋은 동성 친구를 고르도록 하였다. 종단적 연구이므로 입학후 14개월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서 동일한 인물을 선정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했다. 분석된 내용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행동, 자기노출수준,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매력평정이었다. 측정은 동일한 친구에게 보인 행동, 노출 및 매력을 세 시점에서 자기보고케 하였으므로 세 시점에서 반복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 시점

3월에 입학한 후 세 차례 수행된 조사의 시점은 1981년 3월, 10월, 그리고 1982년의 5월이었다.

(3) 행동측정치

(1) 전체행동빈도 : 필자(1982)의 대인행동 연구결과 양자관계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관련성이 깊은 70개 행동측정치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 기간 동안에 친구와의 사이에서 실제로 발생한 행동별 빈도를 각각 적게 하였는데, 분석에서는 체크된 전체 행동의 수가 사용되었다.

(2) 긍정적 행동빈도 : 위의 70개 행동들 가운데 필자와 대학원생들에 의해서 두 사람 간의 친구관계를 유지하거나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33개 행동의 수를 전체행동빈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부정적 행동빈도 : 두 사람 간의 친구관계를 해치거나 방해가 된다고 판단된 25개 행동 가운데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4) 자기노출 측정치

(1) 최고자기노출 : 자기노출은 언어적 정보소통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된다(Jourard, 1964 ; Cozby, 1973). 자기노출의 측정은 필자(1981)의 자기노출 항목표의 문항에 대해서, 다른 대학생집단으로부터 척도치를 얻어 사용했다(미발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으로서 적절한 제목들을 모은 노출항목표는 모두 40개의 화제 항목이었다. 그 가운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 기간 동안에 친구와 실제로 대화를 나눈 화제를 모두 고르도록 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얻은 척도치로부터 체크된 화제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수준에서 대화될 수 있는 화제의 척도치를 최고자기노출치로 사용했다.

(2) 최고 및 최하 자기노출 요망도 : 친구와 대화한 내용 가운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과 가장 낮은 항목의 바람직한 정도를 각각 별도로 측정했다.

(5) 대인매력 측정치

대인매력은 대인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필자(1978, 1981)의 견해에 따라서 피상적 대인관계부터 깊이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네 수준별로 각각 측정되었다.

제 1 수준 : ① 이 사람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② 이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제 2 수준 : ① 개인적 친구가 아니라 자주 접촉해야 할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②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상대로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겠습니까?

제 3 수준 : 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함께 할 친구로서는 어떻게겠습니까?

② 이 사람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룹에 넣어주기에는 어떻게습니까?

제 4 수준 : ① 이 사람이 평생 사귄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는 어떻게겠습니까?

② 이 사람이 개인적 고민을 상의할 상대로서는 어떻게겠습니까?

각 수준별 매력은 두 개의 질문에 “매우 좋다”부터 “매우 싫다”까지 7점

평정척도에 반응한 측정치로부터 산출하였다. 또한 친구의 매력 총점은 네 수준 여덟 문항에 대한 평정치를 합해서 산출했으므로 개인별 매력 총점은 8부터 56점까지의 값을 지닌다.

(6) 피험자

I전문대학 입학생중 355명의 전체 피조사자들 가운데 입학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학생으로서 입학초인 3월말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선정한 자들을 가려내고, 그 선정된 친구를 다음해 10월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 계속해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목한 학생들 7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입학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친구들을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선정한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여학생이 46명이었고, 남학생은 25명이었다. 반응자료에서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는 학생은 각 측정치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 과

(1) 친교 기간에 따른 행동, 자기노출 및 매력의 변화

1) 행동의 변화

행동 수의 변화는 전체 행동수, 긍정적 행동수 및 부정적 행동수로 나누어서 다룬다.

(1) 전체 행동수의 변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남녀 학생들에게 각각 세 시점에서 측정된 친구와의 전체 행동 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또한 이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 후부터 7개월 기간으로 3회 측정했을 때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행동수도 점차 증가되었다($F(2,138) = 26.05, p < .001$). 즉, 세 시점에서의 행동수를 추세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차식 성분도 유의했으며($F_{lin}(1,69) = 43.25, p < .001$), 2차식 성분도 유의했으나($F_{quad.}(1,69) = 8.17, p < .01$), 1차식 성분의 변량이 컸다. 따라서 적어도 1년 6개월이란 세 시점으로 이어진 기간 동안에는 행동이 일차식 성분으로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인관계

<표 1> 친구와 교류한 전체 행동수의 평균

회수 성별	n	1 회	2 회	3 회	전체평균
남 자	25	16.00	23.44	25.28	21.57
여 자	46	20.26	28.78	30.93	26.66
전 체	71	18.76	26.90	28.94	24.87

〈표 2〉 친구와 교류한 전체 행동수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집단간				
남녀(A)	1256.98	1	1256.98	5.05*
집단내(S)	17158.01	69	248.67	
피험자내				
시행수(B)	3611.29	2	1805.64	26.05***
A×B	17.33	2	8.67	0.13
B×S	9564.69	138	69.31	

* = $p < .05$ ** = $p < .01$ *** = $p < .001$ 이하 같음.

에서의 교류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예언한 이 연구의 제 1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같았다. 즉,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학생도 세 시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48) = 8.43, p < .01$), 여학생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90) = 21.53, p < .001$). 그러나 교류한 행동의 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다($F(1.69) = 5.05, p < .05$).

세 시점에서의 행동수 평균치를 사후 비교하여 세 시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면, 제 1 시점에($\bar{X}_1 = 18.76$) 비해서 제 2 시점에서($\bar{X}_2 = 26.90$)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t = 2.72, p < .05$), 또한 제 1 시점에 비해서 제 3 시점에서($\bar{X}_3 = 28.94$) 유의한 행동의 증가를 보였다($t = 3.06, p < .01$). 그러나 제 2 시점($\bar{X} = 26.90$)과 제 3 시점($\bar{X} = 28.94$) 간에는 행동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bar{X}_1 = 16.0, \bar{X}_2 = 23.44, \bar{X}_3 = 25.28$)에게서나 여학생($\bar{X}_1 = 20.26, \bar{X}_2 = 28.78, \bar{X}_3 = 30.93$)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남학생 $t_{\bar{x}_2 - \bar{x}_1} = 3.04, p < .05$; $t_{\bar{x}_3 - \bar{x}_1} = 3.70, p < .05$; $t_{\bar{x}_3 - \bar{x}_2} = 0.83$ n.s.; 여학생 $t_{\bar{x}_2 - \bar{x}_1} = 5.32, p < .01$; $t_{\bar{x}_3 - \bar{x}_1} = 5.45, p < .01$; $t_{\bar{x}_3 - \bar{x}_2} = 1.37$ n.s.). 이 결과는 사귀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인행동이 크게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증가추세가 둔화되리라고 예언한 이 연구의 제 2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2) 친구와 교류한 긍정적 행동수의 변화

친구와 교류한 행동들 가운데서 친구관계의 유지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친사회적 행동들의 수를 분석했다. 성별에 따라서 세 시점별로 긍정적 행동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표 3〉의 긍정적 행동수의 평균과 〈표 4〉의 변량분석 결과로부터 친구관계가 시간적으로 경과됨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F(2.120) = 12.18, p < .001$). 추세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차식 성분이 $F_{lin}(1.69) = 19.76$ 으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차식 성분 역시 유의했으나(F

〈표 3〉 친구와 교류한 긍정적 행동수의 평균

성별	회수	n	1 회	2 회	3 회	전체평균
남 자		25	7.84	10.32	11.12	9.76
여 자		46	9.41	13.11	12.72	11.76
전 체		71	8.86	12.13	12.18	11.06

〈표 4〉 친구와 교류한 긍정적 행동수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집단간				
성 별(A)	194.53	1	194.53	3.60
집단내(S)	3731.46	69	54.08	
피험자내				
시행수(B)	444.19	2	222.09	12.18***
A × B	15.17	2	7.56	0.41
B × S	2515.96	138	18.23	

(1.69)=7.25, $p < .001$) 일차식 성분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이 76.3%에 달하므로, 친구관계가 시간적으로 오래 지날수록 긍정적 행동의 수가 일차함수 관계로 증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남녀별로 단순주효과를 보더라도 남학생이나($F(2.48)=3.77, p < .05$) 여학생($F(2.90)=7.54, p < .001$) 모두 3회 기간 동안에 긍정적 행동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3) 친구와 교류한 부정적 행동수의 변화

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수를 성별 및 세시점별로 정리한 평균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및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수에 차이가 있었는데($F(1.69)=4.64, p < .05$),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남자 $\bar{X}=2.96$, 여자 $\bar{X}=4.76$) 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정적 행동의 수가 증가되었다(남자 F

〈표 5〉 친구와 교류한 부정적 행동수의 평균

성별	시점		1 회	2 회	3 회	전 체
	n					
남	25		1.32	3.76	3.80	2.96
여	46		2.30	5.09	6.85	4.75
계	71		1.96	4.65	5.77	4.12

〈표 6〉 친구와 교류한 부정적 행동수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집단간				
성별(A)	155.06	1	155.06	4.64*
집단내(S)	2306.67	69	33.42	
피험자내				
시행(B)	431.10	2	215.55	15.66**
A × B	39.61	2	19.81	1.44
B × S	1899.66	138	13.77	

(2.48) = 3.48, $p < .05$, 여자 $F(2,90) = 18.03$, $p < .001$, $F_{lin}(1,69) = 36.70$, $p < .001$. 친구사이에 친교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정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우정관계가 진전될 수록 부정적 행동이 억제되고 긍정적 행동이 증가하리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여서 주목을 끈다.

2) 친구에 대한 자기노출 수준의 변화

(1) 최고노출 수준

세 시점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화제로 삼았던 대화내용 가운데 최고자기노출 점수의 평균은 〈표 7〉과 같고, 이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최고 자기노출 수준의 평균

성별	시점 n	시점			
		1 회	2 회	3 회	전 체
남	27	53.21	56.89	56.46	55.52
여	50	51.80	57.84	57.75	55.80
계	77	52.30	57.51	57.29	55.70

〈표 8〉 최고 자기노출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피험자간				
성별(A)	4.06	1	4.06	11
집단내(S)	2839.67	77	36.88	
피험자내				
시행(B)	1079.68	2	539.84	15.69***
A × B	77.87	2	38.94	1.13
B × S	5299.16	154	34.41	

표에서 보는데로 친교기간이 길어질수록 친밀한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F(2,154)=15.69, p<.001, F_{lin}(1,77)=21.04, p<.001$), 이 현상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F(2,100)=20.39, p<.001$). 이는 친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언어적교류가 깊어질것으로 예언한 본 연구의 제 1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세 시점간의 차이를 보면, 제 1 시점에 비해서 제 2 시점 ($t_{78}=4.62, p<.01$)이나 제 3 시점($t_{78}=4.62, p<.01$)에서 더 높은 최고노출을 보였다.

(2) 최고요망도 수준

다음의 <표 9>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와 대화한 화제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화제의 바람직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세 시점에서 유의

<표 9> 화제의 최고 요망도 평균

성별	시점 n	시점			
		1 회	2 회	3 회	전 체
남	27	57.89	59.93	59.79	59.20
여	50	56.71	60.20	60.14	59.01
계	77	57.13	60.10	60.01	59.08

<표 10> 최고 요망도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피험자간				
성별(A)	1.94	1	1.94	.09
집단내오차(S)	1693.53	77	21.99	
피험자내				
시행(B)	355.03	2	177.52	17.36***
A×B	27.05	2	13.53	1.32
B×S	1574.38	154	10.22	

한 차이를 보였다($F(2,154)=17.36, p<.001$). 즉, 친교기간이 길수록 최고요망도 수준이 높았다($F_{lin}(1,77)=23.74, p<.001$). 이러한 추세는 남자($F(2,27)=3.78$)나 여자($F(2,50)=19.25, p<.001$)에게서 모두 같았다. 시점간의 차이를 보면 제 1 시점에 비해서 제 2 시점($t_{78}=4.97, p<.01$)이나 제 3 시점($t_{78}=4.90, p<.01$)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3) 최하요망도

우정이 형성된 후 친교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화한 화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가 <표 11>과 <표 12>에 제시되었다.

〈표 11〉 화제의 최하요망도 평균

성별	n	시점			
		1 회	2 회	3 회	전 체
남	27	38.04	36.39	37.54	37.32
여	50	36.10	35.67	36.43	36.07
계	77	36.78	35.92	36.82	36.51

〈표 12〉 화제의 최하요망도 변량분석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자 승 평 균	F
피험자간				
성별(A)	85.56	1	85.56	4.39*
집단내오차(S)	1499.67	77	19.48	
피험자내				
시행(B)	48.02	2	24.01	1.73
A × B	13.89	2	6.94	0.50
B × S	2133.29	154	13.85	

이 표에서 보는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화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나($F(1,77) = 4.39, p < .05$), 친교기간에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화제로 대화한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친구에 대한 매력의 변화

성별과 세 시점을 구분하고, 또한 친밀도를 고려하여 4 수준으로 평정한 대인매력의 평균은 〈표 13〉과 같고, 이 자료를 변량분석한 것은 〈표 14〉와 같다.

이 두 표, 그리고 단순변량분석 및 평균치의 대비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세 시점간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정도에는 유

〈표 13〉 친교 시점별로 본 매력 평균

매력 수준	시점		2 회		3 회		전체
	1 회						
	남	여	남	여	남	여	
1 수준	10.65	9.78	10.61	10.51	10.91	10.27	10.38
2 수준	10.70	10.71	10.39	10.24	10.83	10.20	10.47
3 수준	11.17	10.73	11.35	11.07	11.22	10.66	10.97
4 수준	11.87	12.00	12.35	12.07	11.39	11.54	11.87
	10.91		11.05		10.82		

〈표 14〉 대인 매력 평정치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피험자간				
성별(A)	16.47	1	16.47	0.35
집단내오차(a)	2929.22	62	47.25	
피험자내				
시행(B)	4.66	2	2.33	0.22
AB	1.39	2	0.69	0.07
B×집단내오차(b)	1320.63	124	10.65	
매력(C)	227.97	3	75.99	27.82***
AC	7.22	3	2.41	0.88
C×집단내오차(c)	508.18	186	2.73	
BC	24.43	6	4.07	2.74*
ABC	8.81	6	1.47	0.99
BC×집단내오차(bc)	552.71	372	1.49	

의한 차이가 없었다($F(2,124)=0.22$). 이는 첫 시점부터 여러 동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선택케 했으므로 높은 매력수준을 지닌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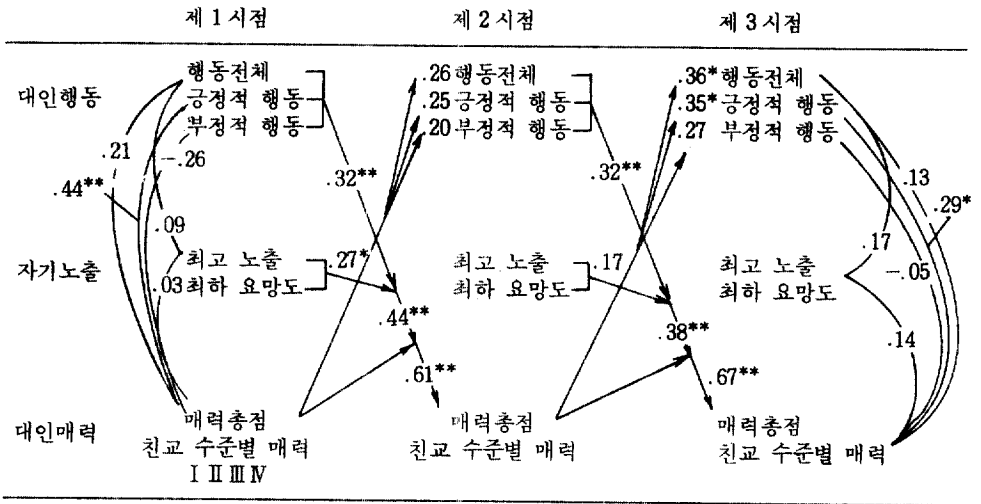
둘째, 첫째 결과와는 달리, 세 시점에서 얻은 자료를 합쳐서 피상적 매력부터 깊은 대인교류에서의 매력까지 매력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때는 이 평정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86)=27.82, p<.001$). 즉, 가장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매력 평정치는 가장 낮고, 가장 친밀한 제 4수준에서의 매력까지 점차 특점이 높았다. 이 결과도 역시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평정이므로 긴밀한 수준의 매력 평정치가 높았음을 밑받침해 준다.

셋째, 세 시점에서 각각 네 수준의 매력을 평정했을 때 시점과 매력 평정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F(6,372)=2.74, p<.05$). 즉, 제 1시점에서 피상적 매력이 가장 높고 친밀한 수준의 매력이 가장 낮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3,186)=13.98, p<.001$), 제 3시점에서도 네 매력치간에 같은 형태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3,186)=7.69, p<.001$), 제 3시점에서는 네 매력측정치간의 차이가 제 1시점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아졌다.

(2) 대인행동과 자기노출에 의한 대인매력의 종다예언

앞에서는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대인매력이 변화되는 양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대인행동의 폭과 깊이를 각각 나타내는 대인행동의 다양성과 자기노출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서 다음 시점에서의 대인매력 수준을 예언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표 17> 대인행동 및 자기노출과 대인 매력 간의 상관 중다상관 분석



*, ** 각각 $p < .05$ 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중다상관관계

<표 17>에는 대인행동 및 자기노출에 의해서 다음 시행에서의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계수가 제시되었다. 또한, 행동측정치들이나 자기노출 지표들을 별개로 나누어서 매력과의 중다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제 1 시점과 제 3 시점 각각에서 중요한 측정치들간의 상호상관이 단순상관계수로 좌우 양측 끝에 제시되었다.

이 표와 중다상관계수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동수와 자기노출의 두 요인에 의해서 다음 시점에서의 매력수준을 예언한 회귀계수는 두 시점에서 모두 유의했다. 제 1 시점에서의 행동과 자기노출 지표들로 제 2 시점의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은 $R = .44$ 로서 매력의 전체 변량의 20%를 설명한다. 이의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제 2 시점의 매력을 예언하기 위한 제 1 시점의 전체 행동수, 긍정적 행동수, 부정적 행동수, 최고자기노출 수준, 최하 요망도 가운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정적 행동($t_{33} = 2.21$, $p < .05$)이었다.

또한, 제 2 시점에서의 행동수와 자기노출 요인들에 의해서 제 3 시점의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은 $R = .38$ 로서 매력의 전체 변량의 14%를 설명한다. 이의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 3 시점의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행동수($t_{33} = 2.50$, $p < .05$) 및 전체 행동수($t_{33} = 2.17$, $p < .05$) 등이었다. 이 결과들로 부터 친교시점에 따라서 매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인행동과 자기노출이라는 두 요인이 매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제 3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대인행동, 자기노출과 아울러 매력 측정치를 함께 예언치로 삼아 다음 시점에서의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계수는 제 2 시점 및 제 3 시점에서 각각 $R=.61$ 과 $R=.67$ 이었다. 이는 각각 전체 매력변량 가운데 38%와 45%를 설명하는 크기로서 매력의 상당 부분이 이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앞서 대인행동과 자기노출이 제 2 시점이나 제 3 시점에서의 매력과 각각 $R=.44$ 및 $.38$ 의 중다상관을 보인 점과 비교하면, 이전 시점의 매력평정치를 추가함으로써 중다예언이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세째, 행동 측정치인 전체 행동수, 긍정적 행동수 및 부정적 행동수에 의해서 대인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은 제 2 시점에서나 제 3 시점에서 똑같이 $R=.32$ 로서, 이 요인들의 회귀계수들이 유의했다.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세 행동 예언치 가운데 부정적 행동수만 매력총점과의 상관이 유의했다($t_{53}=2.26$, $p<.05$). 시점에 따른 중다상관의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행동의 폭에 의해서 다음 시점의 매력을 예언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네째, 친구와 함께 대화한 화제의 최고 노출과 최하 요망도 및 최고 요망도에 의해서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을 보면, 제 2 시점에서는 $R=.27$ 로서 회귀계수가 유의수준에 이르렀으나, 제 3 시점에서는 $R=.17$ 로서 유의수준에 미달했다. 이 결과는 자기노출이 우정의 유지단계에서보다는 우정의 형성단계에서 매력수준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친교수준별로 측정된 네 매력 측정치로 다음 시점의 행동을 예언했을 때 제 2 시점($R=.26$)과는 달리, 제 3 시점에서만 전체 행동수($R=.36$) 및 긍정적 행동수($R=.35$)와 각각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였다. 매력으로 부정적 행동을 예언한 중다상관은 $R=.27$ 로서 유의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 결과는, 행동에 의해서 매력을 예언했을 때와는 달리, 깊은 우정관계에서는 매력수준에 따라서 전체 행동이나 긍정적 행동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섯째, 각 시점에서 측정치 상호간의 단순상관을 보면, 긍정적 행동과 매력총점과의 단순상관만 제 1 시점($r=.44$, $p<.01$)과 제 3 시점($r=.29$, $p<.05$)에서 모두 유의했다. 이 결과는 앞서 매력의 예언치로 사용했던 대인 행동수나 자기노출이라는 행동의 폭과 깊이 측정치들이 같은 시점에서 상호독립적이며, 긍정적 행동이 매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매력측정치와도 독립적임을 시사한다.

(1) 친교기간에 따른 변화의 분석

1) 행동수의 변화

(1) 전체 행동수 : 친교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동의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사실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 행동 교류의 폭이 증가되리라는 사회적 침투이론의 예언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건지 7개월까지 행동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나 7개월과 14개월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행동의 다양성의 증가추세가 친교가 시작된 뒤 일정기간 후에는 둔화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몇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14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동의 다양성이 증가된 점으로부터 행동의 증가가 친교기간의 초기 몇주에 한정되지 않고 적어도 6~7개월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Hays(1984, 1985)에 의해서 수행된 12주까지의 친교기간 연구에서는 6~9주 이후부터 행동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폭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로부터 Hays(1985, p.920)는 3~6주되는 친교기간이 관계 형성단계로서 행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고 해석했으나,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Hays의 연구는 친교 초기의 변화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이해하려한 점에서는 흥미있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긴기간이 경과했을때의 자료가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추론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한국 대학생의 경우 초기 친교기간에 비해서 행동 교류의 폭이 14개월 내에는 감소되지 않았다. 친교시점과 행동변화의 폭에 관한 Hays와 본 연구결과 사이의 불일치는 분석 시점과 연구방법의 차이 때문에 문화 차이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른 대인침투의 비율 차이를 사회적 침투이론의 지지 결과로 해석했다. 사회적 침투이론에 따르면, 친교초기에 침투의 비율이 빠르나, 친교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인 성격의 표면부분의 교류와는 달리 내적 심층부분의 장벽으로 침투가 늦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침투이론은 침투 비율의 변동을 결정짓는 시점이나 단서에 관한 제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시점 차이를 달리한 연구결과들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세째, 사회적 침투이론을 떠나서도 친교기간에 따른 대인행동의 증가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Braiker와 Kelley(1979)의 주장에서도 친교기간에 따른 행동 증가가 예견되며, 이는 사회적 침투이론과도 양립이 가능하다. Braiker와 Kelley(1979)는 친교초기에 아첨하는 전략이나 예의바르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규범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시점간 행

동의 차이는 제 2 시점 이후의 유의한 행동 증가라기보다는 제 1 시점에서의 행동의 억제에 기인된 결과일 수도 있다.

(2) 긍정적 행동 및 부정적 행동수 :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친구사이에서 긍정적 행동 역시 증가했다. 이 결과로 긍정적 행동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친교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교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 역시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친교기간 경과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도 증가됨을 알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친교 초기에는 후기보다 우정 관계의 형성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고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조심스럽고 의도적인 행동 조절과정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에 부정적 행동이 많은 점은 부정적 행동의 증가라기보다 초기의 억제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해석은 친교시점별로 본 부정적 행동수에서도 밑받침된다. 부정적 행동수의 시점별 전체 평균이 제 1 시점부터 차례대로 2.0, 4.7 및 5.8로서 초기에 매우 적었다.

둘째, 친구와의 친교관계의 변화를 긍정적 행동이나 긍정적 평가의 증가로만 보려는 관점이 잘못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같은 이해방법의 연장선상에서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수와 부정적 행동수의 상대적 차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보상에서 부담을 제외한 값의 크기에 의해서 사회적 침투 정도를 설명하려는 사회적 침투이론과도 일치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시점별로 본 긍정적 행동수와 부정적 행동수의 차이는 전체평균으로 각각 6.9, 7.4 및 6.4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교환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침투이론도 대안적 비교수준과 비교한 상대적 차이의 크기를 문제삼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이 이론의 예언이 전적으로 부정됐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보상에서 부담을 뺀 순이익 증가라는 개념만으로는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행동수의 증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세번째이면서 가장 강력한 해석은 부정적 행동의 증가를 친구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친구관계를 이루는 두 사람 사이에 독특한 방식으로 부정적 행동을 처리하거나 수용하는데 친밀한 우정관계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양자관계에 독특한 적응양상의 발전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보고에서는 대인행동에 관한 분석을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이라는 분류에 따라서 수행했는데, Levinger(1974; Huesman & Levinger, 1976)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인행동의 질적 분류에 따른 변화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발표할 것이다.

2) 자기노출 수준의 변화

대화를 통해서 친구에게 자신을 드러낸 최고노출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되었다. 최고자기노출에서도 제 1 시점에 비해서 제 2 시점이나 제 3 시점에서의 최고노출 수준이 역시 높았지만, 제 2 수준과 제 3 수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친교 단계별로 교류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사회적 침투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비록 동료 학생들의 평정으로 노출 수준을 측정 한 점에서는 이 연구와 다르지만, Berg(1984)도 6 개월을 전후한 두 시점의 차이분석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최고노출 수준의 유의한 시점별 증가는 여학생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교 기간이 짧은 첫 시점에서의 노출수준이 이미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교 시점이 경과함에 따라서 친구와 대화한 화제의 노출수준과 아울러 바람직한 수준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됐다.

3) 친구에 대한 매력의 변화

친교후 세 시점에서 매력을 평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간경과에 따라서 친구에 대한 호감이나 우정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을 다룬 연구결과들을 보면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Berg(1984)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친교 6 개월후와 비교해서 호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우정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Eidelson(1980)도 새로 사귄 친구들이 사귄지 6 주후에 우정관계에 대해서 만족이 낮아짐을 보고했다. 그는 만족이 낮아지는 이유를 상대방에 대한 부담의 가중에서 찾으려고 한다. 한편, Hays(1985)는 친교후 3 주 간격으로 12 주까지 네 차례 우정강도를 평정케한 결과, 우정강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Hays의 우정강도 효과를 다룬 기간은 본 연구로서는 제 1 시점 전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그의 연구결과가 반드시 본 연구와 불일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 매력은 적어도 장기간에 걸치는 친교기간 경과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매력을 친밀도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평정케 했을 때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매력 평정이므로 인상과 같은 피상적 관계에서의 평정은 높지 않았으나, 평생사귄 친구처럼 긴밀한 관계에서의 매력 평정은 높은 수준에 머무른다. 이 결과는 친교관계의 친밀도 수준별로 매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적합함을 시사한다. 또한, 친밀도수준에 따라서 매력을 평정했을 때 제 1 시점에서는 네 친밀도 수준별 평정치 사이에 차이가 현저했으나, 14 개월이 경과된 제 3 시점에서는 유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제 1 시점에 비해서 그 차이가 현격하게 축소되는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을 보였다.

(2) 대인행동과 자기노출에 의한 대인매력의 중다예언

사건지 1개월된 친구간의 대인행동과 노출수준에 의해서 7개월후의 대인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계수는 $R=.44$ 로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였다. 예언치들 가운데 긍정적 행동과 매력 총점간에만 $r=.44$ 로서 유의한 단순상관을 보인 점을 고려할때, 이 결과는 상호독립적인 예언치들에 의해서 매력이 효과적으로 예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대인행동이나 ($r=.32$) 노출수준($r=.27$)에 의한 단순예언보다 중다예언이 매력을 더 잘 설명해줌을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7개월째의 두 예언치에 의해서 14개월후의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계수는 $R=.38$ 로서,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결과로부터, 대인행동의 폭과 친교관계의 깊이에 의해서 매력수준이 잘 예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 연구의 제 3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 1시점에서 제 2시점의 매력을 예언할때에는 부정적 행동과 자기노출의 최하 요망도가 유의한 예언요인인데 비해서, 제 2시점에서 제 3시점의 매력을 예언하는데는 긍정적 행동과 전체행동이 유의한 예언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자기노출이 특히 우정 형성단계나 초기 우정관계에서 중요하고, 후기의 유지단계에서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좀더 폭넓게 말해서 친교시점에 따라서 매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교기간 경과에 따라서 양자관계에서의 보상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는 Levinger (1979)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친교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상호교환되는 내용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기노출치들이 친교초기에만 매력을 예언하는데 중요하다는 결과는 시점별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제 2시점에서는 $R=.27$ 로 유의한 회귀계수였으나, 제 3시점에서는 $R=.17$ 로서 유의하지 못했다. 이는 깊은 친교를 통해서 이미 깊은 상호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교기간이 긴 후에는 매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인행동 및 자기노출에 이전 시점의 매력평정치를 추가했을때, 다음 시점에서의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은 제 2시점과 제 3시점에서 각각 $R=.61$ 과 $R=.67$ 로서 매력평정치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하게 높은 중다상관을 보인다.

이상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끝으로 우정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과 개선해야 할 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친교후 첫 6개월까지의 기간이 우정관계 형성에 중요한 만큼, 친교관계 시작 직후부터 짧은 시간적 단위로 나누어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인행동이나 자기노출도 마찬가지로, 친밀한 친구관계에서는 매력 점수가 최고점에 도달되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친밀하지 않거나 친밀한 관계가 붕괴된 경우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포함한 다른 분석결과는 다음 보고로 미룬다.

셋째,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는 일반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석에 제약이 따르며, 앞으로 다른 대상을 다른 연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윤 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제2권 제1호, 94-113.
- 한 덕웅(1982). 대인관계의 행동적 구조 : 2인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32집, 143-180.
- 한 덕웅(1980). 자기노출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30집, 109-137.
- 한 덕웅(1978). 성격특성의 귀속체계와 대인관계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78. 8.
- Altman, I. (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iality, and crowding*. Monterey, Calif. : Brooks-Cole.
- Altman, I. (1974). The communication of interpersonal attitudes : An ecological approach. In T. L. Huston (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 Academic Press.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N. Y. : Holt, Rinehart, & Winston.
- Altman, I., Vinsel, A. M., & Brown, B. B. (1981). Dialectic conceptions in social psychology : An application to social penetration and privacy regul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N. Y. : Academic Press.
- Berg, J. H. (1984). Development of friendship between room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346-356.
- Berscheid, E., & Walster, E. H.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 Co.
- Braiker, H. B., & Kelley, H. H. (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 Y. : Academic Press.
- Burgess, R. L. & Huston, T. L. (Eds.) (1979).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 Y. : Academic Press.
- Cozby, P. C. (1973). Self-disclosure :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2),

- Duck, S., & Gilmour, R. (1981). *Personal relationships. 1 :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 Academic Press.
- Duck, S., & Gilmour, R. (1981). *Personal relationships. 2 :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 Academic Press.
- Duck, S. (Ed.) (1977). *Theory and practice in interpersonal attraction*. London : Academic Press.
- Eidelson, R. J. (1980).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level of involvement : A curvilinea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60-470.
- Foa, U., & Foa, E. B. (1975). *Resource theory of social exchange*. Morristown, N. J., : General Learning Press.
- Hays, R. B. (1985). A longitudinal study of friendship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909-924.
- Hays, R. B. (1984).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5-98.
- Huesmann, L. R., & Levinger, G. (1976). Incremental exchange theory : A formal model for progression in dyadic social interac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N. Y. : Academic Press.
- Huston, T. L. (1974).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 Academic Press.
- Huston, T. L., & Levinger, G.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9**, 115-156.
- Huston, T. L. & Robins, E. (1982).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4), 901-925.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 Y. : Wiley-Interscience.
- Jourard, S. M. (1964).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 N.J.: Van Nostrand.
- Kelley, H. H. (1979). *Personal relationships : Their structures and processes*.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 Kelley, H. H., Bers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McClintock, E., Peplau, G., & Peterson, D. R. (1983). *Closerelationships*. N. Y. : Freeman & Co.
- Levinger, G. (1980). Toward the analysis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510-544.
- Levinger, G. (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 Y. : Academic Press.
- Levinger, G. (1974) A three-level approach to attraction : Toward an understanding of pair relatendness. In T. Huston (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Academic Press.
- Levinger, G., & Raush, H. (Eds.). (1977). *Close relationships : Perspectives on the*

- meaning of intimacy*. Amherst, Mass. : Univ. of Massachusetts Press.
- Tolstedt, B. E., & Stokes, J. P. (1984). Self-disclosure, intimacy, and the depenetr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1), 84-90.
- Walster, E., Walster, G. W., & Bersheid, E. (1978). *Equity : Theory and research*. Boston : Allyn & Bacon, Inc.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friendship formation and development

Hahn, Duck-Woong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

A longitudinal study was performed within a framework of social penetration theory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same sex friendship formation and development.

71 ju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successfully developed into intimate friendship completed questionnaires three times on newly developing friendship during 14 months after admission to the college.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self-reports of dyadic behaviors, self-disclosure exchanged in dyad relationship, and rating of attractiveness of the best friend.

Results revealed that both diversity of interpersonal behaviors and intimacy level of self-disclosure were increased as the relationship progress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attractiveness of the friend. It was also found that dyadic behaviors and intimacy levels of self-disclosure were good multiple predictors of attractiveness of the friend 7 months later.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as a supporting data for social penetration theory.